

장흥군,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나섰다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을 하반기부터 지원금 지급

장흥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모두가 따뜻한 2023년을 만든다.

장흥군은 올해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등 복지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마련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민간복지재단 공모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해 21곳의 저소득 가정에 공부방을 마련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를 37가정에서 진행했다.

저소득 가구에는 16억원 상당의 생활지원비 및 자가검사키트를 지원,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 생활안정에 노력했다.

이 밖에 2994세대에 12억원을 들여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은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에게 월 11만원의 수당을, 뇌병변 장애인에게 연 1회 20만원의 위생용품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완화된 선정기준 홍보에 적극 나선 방침이다.

위기 가구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재단 및 후원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특성별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 된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전남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 예산 확보와 주민 홍보에 발빠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흥군(군수 김성·왼쪽)이 올해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장흥군 제공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확대 운영,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민·관 협력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복지 시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 복지의 기본 원칙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다”며 “쫄쫄하고 두터운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어머니 품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상생발전·투자유치 활성화 전남개발공사·광양만청과 협약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장흥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상생발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장흥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투자희망기업 관련 정보 교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산업단지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단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3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 군수는 “장흥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 준 전남개발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감사드린다”며 “산단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직원 아침식사 챙기기 ‘대민서비스 질 향상 기대’

여수시는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직원 아침식사 챙기기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수시청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아침 식사대용 구운계란과 토스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해 건강증진은 물론 직원 간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위해 마련된 것.

준비된 간식은 10여분 만에 소진될 만큼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내식당 내 카페 ‘The 休’에서는 원두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해 동료들 간 소통 공간과 근무 시간 중 소규모 회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아침식사 챙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청년 취업자 116명 주거비 지원 여수시,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여수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 인원은 116명으로 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한다. 여수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선정되면 월 1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진남체육관길 74)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 확인 후 3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215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140억 투입

고흥군이 지역 노인들의 자립과 복지에 힘쓰며 전군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한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해 3675명의 어르신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1일부터 추진한다.

군은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올 사업비로 28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734명이 늘어난 3675명의 참여자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창업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시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사업을 세분화했고 민간수행기관인 고흥시니어클럽에서 24개 사

업단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중 노인일자리 발대식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순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해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에는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순천시 산업안전보건 우

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를 위해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월 순천시의회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찾아가는 군민과의 공감대화 보성군, 주민참여 행정 구현



보성군은 오는 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일 2개 읍면씩 ‘2023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민과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군과 읍면민이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정발전 방안이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과 대화는 군수가 직접 군정 현황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등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공감을 더하는 대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다시 뛰는 보성 3·6·5”의 기치로 중단없는 보성발전을 위해 ‘초심불망 마부작침’의 자세로 군정을 이끌겠다”며 “올해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군민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민과의 대화는 △7일 보성읍·용치면 △8일 득량면·회천면 △9일 미력면·노동면 △10일 겸백면·올어면 △14일 복내면·문덕면 △15일 조성면·별교읍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은지 기자